

2) 현존하지 않는 누정

(1) 옥계정(玉溪亭)

『친증승평지』나 『충평지』의 누정조(樓亭條)에 따르면 이 정자는 판관 정승복(鄭承復 : 1520~?) 이 관직에서 물러나 휴식처로 성의 남쪽 옥천가에 건립하였다고 한다. 그후 1808년(순조 8)에 중건하였으나 폐허가 된 뒤, 성동5리의 검말산으로 다시 이건하였으나 폐쇄되었다고 한다.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의 시 한 구절이 『충평지』에 전한다.

(2) 환선정(喚仙亭)

『친증승평지』를 비롯한 기타 여러 지지(地誌)에 따르면, 이 정자는 1543년(중종 38) 부사로 부임한 심통원(沈通源)이 송광사의 임경당과 함께 건립한 것으로 무예를 시험하기 위한 강무정(講武亭)이었던 것 같다.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된 것을 1614년(광해군 6)에 부사 유순익(柳舜翼)이 중건하였고, 1826년(순조 26)에 부사 김정균(金鼎均)이, 1869년(고종 6)에 부사 성이호(成彝鎬)가 중수하였다. 1910년 이후 송광사와 선암사의 승려들이 윤번으로 선·교종의 포교소로 이용해오다가 1962년 8월 수재 때 유실되었다. 현재 배대유(裴大維)가 쓴 편액만 죽도봉 밑 사정(射亭)에 보관되어 있다.

(3) 선화루(宣化樓)

『친증동국여지승람』에 “재객관동(在客館東) 성임시(成任詩) 장절래순해상구(杖節來巡海上區) …”라는 기록이 있다. 성임(成任 : 1421~1484)은 세종~성종연간의 문신으로 그의 시 한 수가 전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생존했던 이전부터 선화루가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기나 그 내력은 알 수 없다. 이후 『충평지』에 “재객관동 난후폐(亂後廢)”라는 기록으로 보아 임란 후 유실된 듯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4) 관풍루(觀風樓)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친증승평지』 중건관풍루기(重建觀風樓記)에 따르면 순천현의 객관 남쪽에 있었던 누각으로, 1597년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1626년(인조 4)에 현감 이덕수(李德洙)가 전선(戰船)을 만들고 남은 재물을 가지고 승도와 관노를 사역하여 중건하였다. 그러나 1923년 간행된 『충평속지』에 따르면 1898년에 전복되었다고 나오고 있을 뿐 자세한 연유는 알 수 없다.

(5) 망경루(望京樓)

『친증동국여지승람』이나 『허지도서』에 따르면 객관(客館) 내에 있다고 나올 뿐 그 건립시기나 내력 등은 알 수 없다. 다만 이 두 책의 간행연대인 1530~1759년경에는 누가 실재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친증승평지』에도 이무렵에 쓰여진 「망경루중수상량문(望京樓重修

上樑文)』과 순찰사 유명현(柳命賢 : 1643~1703)이 쓴 시 한 수가 전해온다. 그후 간행된 *충평속지*』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6) 반구정(伴鷗亭)

충평속지』에 “정즉고무안현허공(亭卽故務安縣許公) 세수지소(歲修之所)… ”라는 기록이 있다. 정자를 세운 허희인(許希仁)은 16세기 초반의 인물이며 무안현감을 지냈다. 이 누각은 그가 세수(歲修)의 목적으로 세웠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그의 후손 허여(許與)가 1922년에 해촌방의 지등으로 옮겨 중건하였으나, 현재는 폐지되고 없다.

(7) 주변루(籌邊樓)

충평지』· *태동지지*』· *문헌비고*』에 따르면 이 누각은 순천읍내에 있었으며, 1624년에 영장 강필건(姜必健)이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광양현에도 “현성남루야(縣城南樓也) 고칭망해루(古稱望海樓) 영락무술(永樂戊戌) 개금명(改今名)”¹⁾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변루가 반드시 순천에 있었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8) 망미정(望美亭)

통국여지지』(1656년)나 *호남읍지*』 및 여러 지지에 이 정자는 1585년에 부사 김여물(金汝物 : 1548~1592)이 동쪽 성 위에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후 어떠한 연유로 없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통국여지지*』에 “지금은 없어지고 그 터만 남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난 후에 폐철된 듯하다.

(9) 망북정(望北亭)

충평속지』에 “망북정은 이수광(1563~1628)이 우국충심으로 매일 북쪽을 바라보며 사배(四拜)를 올린 곳으로 후인들이 이를 추모하여 망북정이라 하였다.”²⁾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망북정유지비 전면에는 “조선□宗신구천군충숙공휘수망북정유지비(朝鮮□宗臣龜川君忠肅公諱睟望北亭遺址碑)”라고 음각되어 있다. 지봉 이수광의 시호는 충숙이 아니고 문간(文簡)이므로 이수광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확실한 것은 이수(李睟 : 1569~1646)의 *충숙공유고(忠肅公遺稿)*』에 스스로 쓴 「망북정기」가 있어 망북정의 주인공이 바로 이수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이수는 1617년에 순천에 귀양와서 1621년까지 약 4년간에 걸쳐 유배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처음에 성남의 연자루 근처에 우거하다가 이듬해 성북의 대래곡으로 이사를 했다. 그 이유는 북쪽을 바라보는 간절한 정성이 가슴속에 사무쳐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임(임금) 가까이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초가 두어 칸을 손수 지어 집의 이름을 ‘망북

1) *원증통국여지승람*』 권40, 광양현 樓亭.

2) *충평속지*』, 廟亭齋閣. “望北亭 在郡北十里 宗臣忠肅公李睟光 寓居本府 以憂國忠心 日往北亭 四拜 後人追慕立碑 謂之望北亭”

정'이라 한 것도 바로 이런 뜻이다.

(10) 금학헌(琴鶴軒)

《친증승평지》에 「금학헌기」가 보이나 작자는 알 수 없다. 기문 내용 중 순천부사로 부임한 인물이 뜰 앞에 취죽(翠竹)·벽오(碧梧)·산다(山茶) 등을 심고 조그만 연못을 만들어 즐겼다고 하는데, 역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11) 매곡당(梅谷堂)

《증평속지》·《현남대관》·《현남도지》 등에 따르면 매곡당은 해룡면 매곡리에 있었으며, 진사 배숙(裴肅)이 1556년(명종 11)에 건립하였다 한다. 배숙의 자는 수옥(壽玉), 호는 매곡(梅谷)이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1546년에 진사가 된 후 보우의 배척에 앞장섰다. 후일 순천교수관이 되어 후진을 양성하였으며, 세칭 ‘승평사은(昇平四隱)’의 한 사람으로 불린다.

(12) 화정(花亭)

《증평속지》에 “재군동십오리(在郡東十五里) 해룡면마산촌후등(海龍面馬山村後嶺) 효자임택연 읍화처(孝子任澤淵泣花處)…”라고 한 기록이 있다. 정자는 해룡면 마산리에 있었으며, 효자 임택연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증평속지》에 시 몇 수가 전한다.

(13) 송헌(松軒)

《증평속지》에 그 기문이 전한다. 이 기문에 따르면 배숙의 아들이 송헌을 건립하였고, 같은 마을에 매곡당과 송헌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해룡면 매곡리에 있었던 것 같다. 건립연대는 송헌을 건립한 사람과 기문을 쓴 정사준의 행적을 고려할 때 선조 때에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14) 초운당(樵雲堂)

《증평속지》에 따르면 고을 북쪽 15리의 서면 운평리에 있으며, 진사 임중현(任中鉉 : 고종 때 인물)이 건립하여 자신의 호를 따 ‘초운당’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후 이 초운당은 일제 강점기에 철거되었으며, 현재는 김복한(金福漢)이 쓴 기문만 전해온다.

(15) 망성암(望聖庵)

해룡면 앵무산 중턱에 있었던, 부사 양신용(梁信容)의 암자이다. 해룡면 사화에 거주했던 양신용은 인조 때 사람으로 호를 망성암이라 하였으며 병자호란 때 아들 유남(有南), 재종제 만용

(曼容) 등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켜 『증평속지』의 충훈조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제주 양씨인 그는 기묘명현 양평손의 증손으로, 이 암자에 은거하면서 암자 곁에 대를 쌓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북쪽을 향해 앉아서 분향을 올리고 절을 했다고 한다. 『항남악부』의 「망성암」에 그에 관한 기록이 전한다.

이밖에 『증평속지』나 『항남악부』 등의 기록에 나오는 누정으로 영귀당(詠歸堂)·수헌(睡軒)·망월대(望月臺)·서벽당(棲碧堂)·만락정(滿樂亭)·염사당(廉士堂)·삼송정(三松亭)·독역정(讀易亭)·쌍백당(雙栢堂)·이락정(二樂亭)·백구정(白鷗亭)·세심대(洗心臺)·탁사정(濯斯亭)·일섭정(日涉亭)·용파대(龍坡臺)·귀두정(龜頭亭)·이기헌(二既軒) 등이 있으나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한다.